

# 하나님의 역사는 이긴자들의 고난의 생활로부터 시작되었다

## 이긴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시에 의해 고난의 연단을 받고 배출되었다

구세주 배출작업이 해와 이긴자의 18년 간의 고난의 생활로부터 시작되다

소사 1신양촌 3구에서 살던 해와 이긴자에게 당시에 소사 소비조합원들이 마귀라고 쓰레기를 그 방에다가 전부 던지며 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와 이긴자는 끝까지 거기서 견디고 이겼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하니 까 영모님이 지시하기를 오만제단 뒤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탈보 할아버지가 있으니 그 전봉국 장로를 찾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찾아가보니까 전봉국 장로와 전봉국 장로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소사에 나가 집집마다 동남을 하여 밥을 얻어다가 그 밥으로 죽을 쑤어 먹곤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와 이긴자가 심판년 간을 고생하셨던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름에는 보리밥을 얻어 밀실 근방에 쉼바귀라든지 죽을 뜰어다가 죽을 쑤어서 식구들이 나눠먹었던 것입니다.

해와 이긴자가 어느 정도 이겼다가 되니까 영모님이 전도를 나가라고 하셔서 바로 전도를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직접 영모님이 오셔서 지시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시를 받고 움직였어요. '포리'니 '은행리'니 이런 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비가 많이 오니까 논바다이나 집까지도 전부 물이 차서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는, 목까지 물이 차는 가운데에 해와 이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동네 동네마다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구세주를 배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해와 이긴자는 보리밥, 보리 강냉이밥을 얻어오면 그것을 죽을 쑤어서 겨우 연명해서 사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집

집마다 다니면서 동남을 할 때면 어떤 집에는 순순히 밥을 내주지만, 어떤 집에는 없다고 소리 지르면서 빨리 가라고 막 발로 차니 발에 채이곤 했던 것입니다. 너무 너무 비참하게 그러한 학대를 당하면서, 동남을 다니면서 그 동남을 얻어다가 먹어 살렸던 것입니다.

동남으로 생활을 연명하던 해와 이긴자가 전도를 시작하여 밀실이 세워지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 년 이 년도 아니고 십팔 년 간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울에 있는 식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서, 전도관 볼도 안 먹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밀실에 와서 예배를 보고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녔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병이 다 낫는 것입니다. 해와 이긴자와 더불어 예배를 보면 그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풍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금을 해도 큰 돈을 헌금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몇 억씩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밀실에 집이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밀실에 집이 지어지고 밀실에 식구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면서 방에서 거처하게 하고 쌀을 사다가 밥을 해 먹게끔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연단 없이는 이긴자를 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와 이긴자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이 생기다

그 후 해와 이긴자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눈이 생긴 것입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 움직이는 것을 아니니까,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이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왜 과거를 생각하느냐? 뒤돌아보는 음란죄인데 왜 뒤돌아보는 음란죄를 짓느냐"고 막 야단을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를 생각 안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도 되지 않았습다. 여러분들 야시다시피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던 것이 되었어요?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애를 쓰고 기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과거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로 일차로 이긴자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긴자가 일차로 되면 밀실에서는 떡을 해 먹습니다. 왜 떡을 해 먹느냐 하면 떡이라는 건, 쌀을 뺀 거니까 고 찌를 떡이라고 해서 떡쪼?

그러니까 여러 개가 부서져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뜻으로 떡을 해 먹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긴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밀실에서 떡을 해서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그 집이 다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키우기 전에 탈보, 전봉국 장로를 키웠던 것입니다. 전봉국 장로를 키웠으나 매일 올라가다가는 떨어지고, 올라가다가는 또 떨어지고 하니 도저히 이 사람은 키울 수가 없구나 해서, 그 다음에 홍석천이라는 장로를 키웠습니다. 홍석천이라는 장로를 키우다가 소위 붉은 용 마귀라고 하는

청년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을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역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사람을 키워 봐도 되지 않고 또 다른 청년 하나를 키웠습니다. 키웠으나 도저히 키울 수가 없고 올라가다가는 떨어지고 올라가다가는 떨어지고 하니 포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람을 키우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한 가지 말만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겨나가니까 '야, 바로 진짜가 왔구나!' 하면서 해와 이긴자가 무척 기뻐했어. 그러니까 해와 이긴자가 이 사람을 무척 사랑했죠? 이 사람을 무척 사랑하니까 다른 청년들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시기하고 모진 힘든 일을 다 이 사람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나 이 먹은 사람을 시기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 네' 하면서 순종하니까 무슨 트집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잘 이기고 나가니까 해와 이긴자가 병글병글 웃으면서 잘 이긴다고 칭찬을 가끔 했던 것입니다.

전도를 나가 전도받은 사람들이 모두 병이 낫는 등의 체험을 하므로 자신이 성령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만 떨어지면 그대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니까 나중에 이긴자가 되어서 전도하러 나가라고 신사 양복과 구두를 맞춰 주시고 해서 전도하러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하러 이 사람이 나가니까 집집마다 문이 다 닫혀 있는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면 열어주는 순간 바로 그 사람이 불을 받는 것입니다. 온 몸이 뜨거워서 못 견딜 정도의 불을 '훅~' 하고 받아요. 그 다음날 가니까 "내가 바로 위장병이 있었는데 다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집집마다 그렇게 전도를 하니

전도를 받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병이 나았다고 하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스스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녹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우쭐한 음란죄에 걸립니다.

이 사람이 원래 장교생활을 11년 했기 때문에 장교의 생활습관이 젖어 있는 체로 밀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습관에 의해서 생활하게 되겠죠? 늘 전도하러 나가면 나를 따라 붙는 청년이 해와주님한테 "오늘은 거만하게 걸었습니까?" 하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와주님 이긴자가 '왜, 거만하게 걸어!' 하시면서 나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은 방을 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밀실 집은 전부 하꼬방입니다. 그 하꼬방 집에 겨울이면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방입니다. 그래서 아랫목에서 그 사람이 자고 나는 윗목의 찬 곳에서 달달 떨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가 누웠다가 하면서 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사람이 생활하게 되니까 같이 자는 그 사람이 마음이 녹아서 그 다음부터는 매일 같이 다니는 다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매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 앞에는 눈녹듯이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하니까 자기를 때려박아주고 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이 항상 봉사하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겸손하게 이 사람이 움직이니까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 사람은 바로 신에 가까운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한 것을 자백했습니다.\*

2002년 8월 2일 말씀 중에서



# 꿈속의 일을 알고 계시는 박태선 장로님

박태선 장로님을 만나고부터는 새벽 여명이 비치듯 것처럼 신앙의 앞길이 조금씩 보였다

멀쩡한 배가 박태선 장로를 만나러 가는 토요일만 되면 아파오다

너무나 신기한 체험을 한 그 주는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갔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 토요일 아침이 되니, 어찌된 일인지 금요일까지 멀쩡했던 배가 이상하게 아파오는 것이었다. 잔뜩 기대에 부풀은 마음을 포기하고 할 수 없이 그날은 아파서 가지 않기로 했다. 다음 주도 그런 저런 기대를 가지고 한 주일이 또 가고 토요일이 되니, 또 배가 몹시 아파왔다. '멀쩡하던 배가 왜 토요일만 되면 아파오는 거야' 하고 곱곰이 생각해 보니, 혹시 박태선 장로를 만나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해방 놓는 마귀의 장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마귀를 속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기성교회에나 나가야지.....' 하고 짐짓 꼭 그렇게 하리라는 결심을 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일요일이 지나서 새로운 토요일이 왔다. 당일 날 묘하게도 배가 아프지 않는 것이었다. '웬지, 똘다. 마귀가 속아 넘어갔구나!' 하고 쾌재를 부르며 부천 소사신양촌으로 가게 되었다.

부천 소사 신양촌을 먼저 찾았던 다음 박 장로님 댁을 물어물어 찾아가니 마

침 출타 중이었다.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어쩔 수 없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내 경비원이 하는 말이 잠시 후면 돌아오니까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이왕 온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기다리기로 마음을 정했다. 이윽고 박태선 장로가 들어오는데 신도들이 대하는 태도가 이 건 뭐! 한 나라의 대통령 대하는 것보다 더해 보였다. '이단의 괴수라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며 기분이 좋지 않아 그냥 돌아가 버릴까 생각했다. 잠시 멈춰서려는 가운데 박태선 장로가 오셨다. 안내 경비원이 얼른 다가서서 논산에서 장로님을 뵈겠다고 찾아온 군인 한 분이 있다고 전하는 바람에, 박태선 장로가 이 사람 앞으로 다가오셨다. "그래, 장교님은 어떻게 오셨어?"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물어왔다. 막상 질문을 받으니 대답이 궁하여 나도 모르게 "장로님께 안찰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박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더욱 기절초풍할 대담으로 돌아왔다. "안찰은 이미 해 했는데 뭘 또 안찰을 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얼떨결에 "저는 장로님께 안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는 본 적이 있으나 실제로 박태선 장로를 만나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라고 분명하게 대꾸하였다. 그러니까 박 장로님은 기가 차다는 듯이 "신학 대학을 나온



젊은 시절 박태선 장로님

분이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시네. 내가 지난번에 안찰을 해주고 귀 수술까지 해줬잖아?"

이 사람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꿈에서 안찰해 준 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니, 그 순간 박 장로

리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더 이상 보통 사람 대하듯 할 수는 없었다. 무조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었다. 어찌 되었든 여기까지 와서 안찰을 받지 않고 그냥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안찰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안찰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꿈에 안찰을 받을 때도 엄청 아팠는데 실제 받으니까 몸이 으스스해질 정도로 아파서 큰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안찰이 끝나고 고통이 사라지면서 향취 냄새가 진동하였다. 몸이 뚱뚱 뜨며 걸어가는 지 날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가벼우며 기분이 좋았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 체험이었던 것이다.

은혜를 간직하는 생활의 시작

놀라운 체험을 뒤로 하고 다시 논산 훈련소로 복귀해야만 했다. 막상 부대 있는 곳으로 귀환하려면 시외버스를 타고 영등포역까지 가서 열차로 같이타고 돌아와야만 했다.

그러나 버스를 탈 수가 없었다. 일반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않은 죄인들이라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올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너무 귀한 은혜 받은 것이 오묘 받아서 다시 더럽혀지는 것이 싫은 고로 걸어서 영등포역까지 갔

으며, 기차 안에서는 자리가 비어 있어도 앉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객차와 객차 사이 승강대에 서서 목적지까지 위험하지만 찬바람을 맞아면서 가야 했다. 그리하여 그날 이후로 30여 년을 일련단신 박태선 장로님이 이끄시고 가르치는 대로 결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낮에는 부대에서 신병교육을 하고, 밤에는 민간인들을 가르치면서 주말이 되면 부천 신양촌을 어김없이 왔다갔다 하게 되었다. 박태선 장로님을 만나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 간에 신앙생활은 어둠 속에서 길을 모르고 찾아 헤매는 방향생활이었다면, 박태선 장로님을 만나고부터는 새벽 여명이 비치듯 것처럼 신앙의 앞길이 조금씩 보였다. 주말이면 부천 소사 신양촌에 가서 박장로님의 설교말씀을 듣고 늘 죄지지 않는 일거수일투족이 되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면서 시간이 나면 장교복을 입고 복을 치면서 논산 일대를 누비며 전도를 하였다. 남이아 전도관을 이단이니 사이버니 하건 말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한지라 장교의 체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로지 전도관의 진리만 정성을 다하여 전파하는 데 전력을 쏟았다.\*